

慶北地方 石造物補修

鄭 明 鎬

慶北道 文化公報室에서는 一九七一年度 後半期 石造文化財補修復元計劃의 一環으로서 寶物 第五一〇號 箕聖洞三層石塔、寶物 第四六九號 善山洛山洞三層石塔、寶物 第四九八號 九山里三層石塔、寶物 第二五二號 寶鏡寺圓眞國師碑、寶物 第一七二號 鳳巖寺靜眞大師圓悟碑 等の 五件을 國費補助金을 得어 一九七一年 一月一〇일부터 一九七二年 一月一九일까지 二個餘月에 걸쳐 文化財專門委員 鄭明鎬氏監督下에 文化財補修施工業所인 東映建設株式會社에서 施工하였다.

이 五個所의 文化財를 補修함에 있어서 充分한 調査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우선 양해를 빌면서 簡單히 工事結果에 關하여 紹介하고자 한다.

一、箕聖洞三層石塔

漆谷箕聖洞三層石塔은 慶尙北道漆谷郡東明面鳳岩洞一〇二八田에 所在하고 있는 典型的인 新羅時代의 石塔이다.

現在 塔이 所在하고 있는 附近耕作地 一帶地表面에서는 多量の 瓦片이 눈에 띄일뿐 아니라 築臺와 礎石一部가 原位置에 保存되어 있으나 寺名에 對하여는 明確치 않다.

住民들에게 口傳되어 오는 바에 의하면 이 寺址로 들어오는 溪谷途中에 松林寺가 있다.

바로 이 松林寺가 箕聖洞寺址의 작은 집풀이 되며 이곳의 寺名은 法聖寺로 傳해졌지만 아니라 洞里名까지도 寺名과 同名인 法聖洞으로 傳하여지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箕聖洞의 寺址名은 아마도 法聖이란 寺名을 가진 寺刹일 것으로 推定되는 바라 하겠다.

이 塔은 一九六九年 六月二二일에 寶物로 指定하였던 當時만 하여도 完全히 建在하였으나 一九七一年 一月 中旬頃 夜暗을 타고 沒智覺한 盜掘者에 依하여 二層屋蓋石以上部材를 비롯하여 二層基壇의 南面石과 北面石 등을 倒壞 또는 移動시키는 不傷事를 일으키었다.

이에 따라 關係機關인 文化財管理局으로부터 慶尙北道에 國庫金을 支給하여 一九七一年 一月一〇일부터 二月 五日까지 二五日間에 걸쳐 解體復元을 完了하였다.

塔의 構造를 살펴볼 것 같은면 二層基壇 三層石塔으로서 塔身과 屋蓋石은 各各 別石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二層基壇의 面石과 甲石은 各各 四枚石으로 잇갈림 組立法을 따르고 있다. 一層基壇의 甲石과 面石은 各各 八枚石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이 上下基壇內의 積心은 基礎로부터 基壇까지 大形の 礫石과 剝片石 王砂 등으로 充填되어 있다.

塔의 地臺石은 設置되어 있지 않으나 塔의 荷重에 依하여 塔下部部材가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地臺石에 該當되는 周圍에 磚石을 豎置하였다.

以上으로서 塔의 構造를 밝혔다. 塔에 設置되어 있는 舍利藏置孔은 二層屋蓋石 上面에 施設되어 있다.

이 舍利孔은 從來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은 一般的인 舍利孔과는 相異한 特殊構造를 이루고 있음이 注目되었다.

即 舍利孔은 中央部에 位置하였으며 이는 一段의 낮은 方形孔內에 다시 U形의 圓孔이 施工되고 있다.

이 施設處의 上下左右에 長方形의 凹의 홈이 둘러 싸여 있다.

以上과 같은 施孔에 對하여 推定하여 보건데 中央部에 設置되어 있는 部分은 틀림없이 塔의 主體가 되는 舍利를 奉安하였던 舍利孔으로서 밑이 若干 등근 밑 바탕을 이루고 있는 盒型의 容具를 安藏하였던 곳으로 思慮된다.

또 舍利孔의 周圍에 配置되어 있는 長方形의 施工處는 아마도 佛經種類의 遺物을 秘藏하였던 施設로 推定되는 바라 하겠다.

이외에 塔을 해체하던중 注目된 바는 一層基壇에 該當되는 心礎部分

에서 新羅時代의 土器인 高坏破片 二個를 見하였다. 이 破片이 發見된
 處에서는 特別한 遺構를 發見하지 못하여 무엇이냐 論할 수 없으나 土器
 破片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原來는 心礎部分에도 舍利施設이 있
 었던 것이나 어느 時期 一次 補修가 있었던 때에 破壞된 것으로 推定되
 는 바이다.

이번 工事を 實行함에 따라 寶蓋石 一個를 發見 원위치에 安直하는 한
 편 完전히 塼石을 露出시키었다.

二、蔚珍 九山里三層石塔

蔚珍 九山里 二層石塔은 慶尙北道 蔚珍郡 近南面 九山里에 所在하고
 있다.

塔周圍는 모두 耕作地로 化해져 있으며 塔은 基壇部를 비롯하여 모두
 倒壞되어 있던 것을 一九七一年 一月 二二일부터 二六日까지 五日間
 에 걸쳐 解體復元을 完了하였다.

塔은 小形으로서 높이는 三m 一二cm가 되며 一層基壇의 幅은 一m 八〇
 cm가 된다.

塔의 基礎는 큰직한 雜石과 王砂로서 다짐을 하였으며 舍利孔은 一層
 屋蓋石底面 中央에 直徑 一〇cm 深 一三cm의 圓孔을 設置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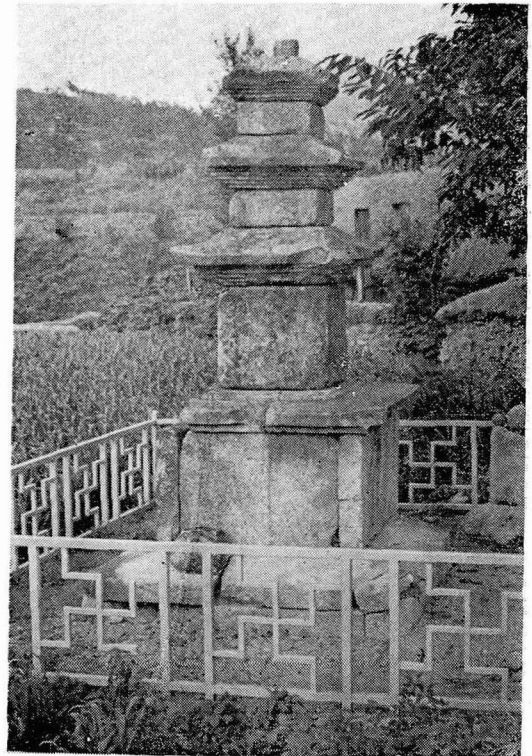
塔周圍를 整理하던 중 塔의 南面 一層基壇앞에서 石燈의 下臺石을, 水面
 에서 竿柱石 破材를 찾아 내었다.

口傳에 의할 것같은면 이 寺址는 高麗時代에 創建하였다 하며 寺名은
 靑岩寺라고 한다.

塔周圍에는 아직 建物址의 礎石과 長大石이 원위치 흙속에 매몰되
 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있었다.

塔은 四〇餘年前까지는 健全하게 서 있었으나 어느날 밤에 倒壞되었
 다고 한다.

口傳에 依할 것같은면 이곳에는 塔外에 鐵佛이 있었다고 하나 鐵佛은
 寺刹이 廢함과 함께 三陟地方으로 移轉되어 갔다고 할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完全復原原 九山里三層石塔

三、寶鏡寺 圓眞國師碑

寶鏡寺 圓眞國師碑는 慶尙北道 迎日郡 松羅面 寶鏡寺 境內에 所在하
 고 있는 것으로서 寶物 第二五二號이다.

圓眞國師碑의 補修는 一九七一年 一月 二六일부터 五日間에 걸쳐
 工事を 完了하였다. 工事は 碑身이 앞으로 約一〇도가량 기울어져 도괴
 파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며 龜裂된 부분을 指摘제
 서 指摘하여 보존하고자 함에 있다.

碑身을 解體하여 본 결과에 의하면 觸部分이 風化에 의하여 거의 酸
 化되어 있을 뿐 아니라 碑文이 기울어짐에 따라 弱화된 碑身의 下部가
 심하게 破裂狀態를 이루키는 同時에 身部分과 觸部分이 分離切斷狀態에
 놓여 있는 것을 發見하게 되었음은 淸만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였다.

이상과 같은 碑身의 觸의 狀態로서는 도저히 碑를 바로 세울 수 없으
 므로 可能한 限 破裂, 龜裂된 部分은 接着劑로서 復元을 하였으며 碑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碑身上部에 鐵帶를 一端두르고 이것과 연결하는 前

後左右에 各各 一柱式의 支柱로서 支撐하게 하여 바로 세웠다.

碑의 幅은 一 m 六 cm 厚 一七 cm、高一 m 八五 cm 가 되며 觸의 幅은 四六 cm 觸의 깊이는 二二 cm 가 된다.

四、洛山洞三層石塔

洛山洞三層石塔은 慶北 善山郡 海平面 洛山洞에 所在하는 寶物 第四 六九號이다.

이 塔은 模塼三層石塔으로서 部材의 一部가 缺失되어 있을 뿐 아니라 基壇 一部가 埋沒되어 있어 文化財 保存에 支障이 있기 때문에 이의 保存에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一九七一年 二月 七日부터 一九七二年 一月 九일까지 五〇餘日에 걸쳐 塔解體復元工事를 完了하였다.

塔의 部材는 總一八四枚石으로서 이중 缺失部材는 八枚石이며 不用 材는 三枚石으로 새로 補充한 石材는 一一枚가 되었다.

補充石材는 尙州洞과 漆谷洞을 使用하였다.

解體結果에 의해서 밝혀진 穴에 의하면 舍利孔은 三層塔身上面에 圓形의 孔을 만들어 舍利藏置를 安置하였으나 韓日合併 直後에 日本人에 의하여 盜掘當하여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음은 매우 불쾌한 일이라 하겠으나 다행히 一層屋蓋의 積心속에서 創建當時에 使用하였던 것으로 推定되는 石材活石用 工具인 鐵針 一個를 發見하였으며 二層基壇에서 金銅製 破佛 四軀와 金銅製佛臺座 一個、佛具 또는 佛龕의 裝飾으로 推定되는 金銅製蓮峰 二個、其他 一個의 銅製破片을 채취하였다.

이들의 諸遺物중 一個의 小佛像을 除外하고 모두 塔과 直接 關係가 없는 遺品이라 하겠다.

즉 盜掘者에 의하여 二層基壇의 東面과 北面、西面의 一部 面石과 撐柱石을 破壞한 然後에 積心部까지 破害를 입힌 공간이 있다. 이 空間에 다 耕作자들이 耕作하면서 出土되는 雜石들을 마구 집어넣은 그 속에서 遺物이 發見된 것으로 미루어 塔과 關係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

으로서 塔解體狀況을 밝혔다.

五、鳳巖寺 靜眞大師圓悟墳碑

寶物 第一七二號로 指定된 마 있는 鳳巖寺 靜眞大師圓悟塔碑가 앞으로 約一五度가량 기울어져 倒壞된 위험이 있기 때문에 事前措置로서 一九七一年 二月 八일부터 二四일까지 七日間에 걸쳐 碑身部代上을 解體 復元을 完了하였다.

이 碑를 解體한 結果 이는 倭政時代에 一次 補修가 있었던 것 같다. 碑 周圍에 人制冊을 設置하기 위하여 地面整理를 하던중 地下에서 碑閣址가 發見되었다.

碑閣址로서는 礎石과 고막이돌 基壇이 마 甲石 등이 原位置에 그대로 保存되어 있다.

이 碑閣은 前面 三間 九 m 六五 cm、側面 三間 四 m 九〇 cm 가 된다. 碑閣內에는 原來는 埽으로 被覆하였던 것 같다.